스쿠버다이빙에 대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안전지식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연구

강광순[O], 송효숙[*]
[O]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e-mail: kks@hit.ac.kr[O], blueeue1112@hit.ac.kr[*]

A Study on the Safety Knowledge and Ability for Coping with accident and emergency situations of Health College Students in Scuba Diving

Kwang-Soon Kang[O], Hyo-Suk Song[*]
[O]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 요 약 ●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의 응급상황대처능력과 안전지식에 대한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총 대상자 수는 10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남학생의 안전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위험한 상상을 경험한 학생들이 응급상황대처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스쿠버다이빙이 안전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수칙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지식 및 응급상황대처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응급상황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지식을 강화시키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스쿠버다이빙(Scuba diving), 안전지식(Safety knowledge),
응급상황대처능력(Ability for Coping with accident and emergency situations)

I. Introduction

정부에서 해양레저 장비산업육성 기본전략을 시작으로, 2012년 이후 해양레저 관련 스포츠 가운에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

대체로 해양레저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높은 효과를 보이지만, 특히 스쿠버다이빙은 장비에 의존하하는 레저스포츠이며, 수중환경 및 날씨환경의 물리적 특성들에 의하여 심리적인 공포감과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인하여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레저스포스활동 중에 하나이다.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2][3], 대부분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방안이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과정의 주를 이루고 있는 대학생 중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안전지식에 대하여 규명하고, 안전한 스쿠버다이빙의 환경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Purpose of Research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보건계열대학생들의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지식 및 응급상황대처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and Data Collecting

본 연구는 재학중인 보건계열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09명을 분석하였다. 대상자 수집기간은 2021년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고, 설문지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정도였다.

3. Research Tools

3.1 Safety knowledge

본 연구에서 안전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Park[4]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96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97이었다.

3.2 Ability for Coping with accident and emergency situations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Park[4]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상화 대처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96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97이었다.

4.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상자는 총 109명으로 남학생이 48명(44.0%), 여학생이 61명(56.0%)이었고, 연령은 평균 20.04±.68세로 분석되었다. 스쿠버에 대한 위험한 상상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학생이 59명(54.1%), 스쿠버다이빙은 안전한 레저스포츠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65명(59.6%)이었으며,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68명(62.4%)으로 나타났다.

2. Difference of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과 응급상황대처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안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고(t=3.27, p=.001), 응급상황대처능력 또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t=2.91, p=.004).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위험한 상상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t=2.27, p=.025). 스쿠버다이빙은 안전한 레저스포츠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안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t=2.04, p=.043).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수칙 지식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안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고(t=5.61, p=<.001), 응급상황대처능력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t=6.50, p=<.001).

IV. Conclusions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학생이 안전지식과 응급상황대처능력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와 경험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은 것을 나타내므로 특히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위험한 상상을 경험한 대상자가 응급상황대처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한 상상을 함으로서, 이에 따른 응급상황대처에 대한 상상력으로 인하여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쿠버다이빙은 안전한 레저스포츠라고 확신하는 대상자가 안전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스쿠버다이빙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집중적인 안전사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수칙 지식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안전지식과 응급상황대처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교육 전 교육생들의 수준정도를 파악하여, 안전수칙의 지식이 낮은 교육생들은 집중적인 안전수칙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스쿠버다이빙의 특정상 다이버들이 수중에 제한된 인원만 있으므로 서로가 최초반응자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2016) *http://www.mct.go.kr*

[2] K. M. Lee, Y. J. Yoon, H. M. Kang, J. H. Lee, N. M. Lee, H. M. Lee, “A study if knowing issues of activating marine-leisure sports and the method of its impr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8, No. 6, pp. 111-124, 2009.

[3] Y. N. Chung, "Analysis of water sports perception risk fcators and countermeasures to improve re-participation intention and satisfcation," The Korea Journal of Spors Science, Vol. 27, No. 6, pp. 505-516, 2018.

[4] H. C. Park, Correlation between SCUBA Divers’ Safety Knowledges, Compliance of Safety Rules and Ability for Coping with Accidentsand Emergency Situatio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2014).